



94.

부산시립무용단 "송년공연"

# 사랑으로 하나되어...



- 부산시립 무용단  
수석안무자 / **김진홍**
- 부산시립 무용단  
안무지도자 / **서숙자**

- 특별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 / **배정형**

'94. 12. 19 (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대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후원 / • 뇌성마비 사단 복지회  
**MBC**  **부산문화방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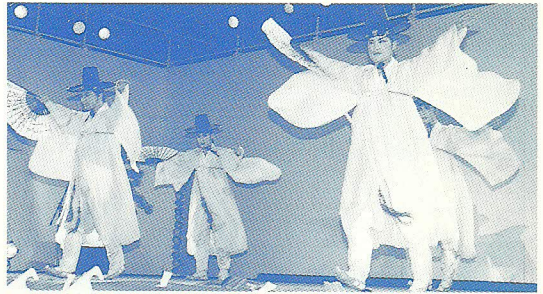
● 태극의 선을 (창작무용)

한국의 국가인 태극문양의 부채를 들고 원무와 직선의 형태로써 기하학적인 구도를 담아 아름답게 펼쳐가는 한국적 매력을 표출한 춤.



● 동래 한량춤 (민속무용)

풍류를 즐기던 사대부들이 멋과 흥에 겨워 한바탕 춤을 추던 색향 동래지방의 덧배기 춤이다.



● 북 춤 (창작무용)

북을 쳐서 모든 영혼과 지우고, 중생까지도 제도하고자 하는 뜻과 토속적인 흥취와 멋진 북장단에서 파생된 춤으로 여러명이 조화를 이루어 치는 북장단이 일품인 춤이다.



● 입 춤 (민속무용)

기방에서 많이 추었던 춤으로 허튼춤의 일부분이다. 동작에 있어 유형별로 나눌때 보릿대춤, 학춤, 절구대춤, 도구대춤, 거드름춤, 할개튀김춤, 배김새춤, 막대춤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춤의 기본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멋을 부린 춤으로써 동래권변에서 주로 많이 추었다.



● 무당춤 (창작무용)

우리의 가장 오랜 민간신앙의 한 형태인 굿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인간의 본능적 움직임의 욕구를 질게 내포하고 있는 원시적 예술형태와 신앙적 성격을 띤 대규모의 부락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굿은 무당이 한 손에는 부채 또는 수건을 들고 한손에는 방울을 흔들면서 추는데 이것은 신이 내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남자 박수무당이 들고 추는 깃발은 吉, 兪, 福, 福을 점치기 위해 赤, 淸, 黃, 黑, 白의 5가지 깃발을 들고 제주에서 가면서 가면서 기를 선택하는데 이중 빨간색 기를 택하면 길하고 북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당무이다.



● 소년소녀합창단

- 꼬부랑 할머니 / 박봉렬 작곡
- 후니쿠니 후니쿨라 / 이태리 민요
- 도레미 송 / 사운드 오브 뮤직 中에서



지 휘/배 정 행



● 사물과 춤의 어울림 (민속무용)

사물(쟁과리, 장고, 북, 징)과 춤이 한데 어우러진 창작무용으로 농악놀이를 더욱 더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무대화시킨 작품이다.

